

시편 묵상 40
(11/9/2023, 목)

찬양: 337(363)(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28:1-9

말씀에 대한 이해: 시편 28 편은 다윗의 시이며 ‘비탄시’로 분류된다. 다윗은 자신의 곤경과 환난 속에 갇힌 상태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다. 본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지만 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본 시편을 지은 것으로 본다. 다윗은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귀를 막지 말고 들어 달라고 간구한 다윗. 시 28:1 -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불렀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출 3:14 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 등장한다.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한다. 살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혹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다윗은 고난 속에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잠잠하시면”이라는 말은 ‘정적을 지키다’, 혹은 ‘행동하지 않다’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자신의 기도를 잘 들어 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추측하게 한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자신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토로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는가?

과연 주님은 귀를 막고 계시고 무관심하시며 그냥 잠잠하기만 하실까?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잠잠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의 생각일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의 느낌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잠잠하신 것 같은 하나님은 실제로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바쁘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시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진입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예배의 자리는 인간의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고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와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자리가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그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뜻을 이루실 주님의 품으로 계속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걷기 위하여 소망하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2)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 시 28:2 -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몸의 방향과 동작을 사용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다윗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준다. “간구하는 소리”라는 표현에서 “간구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형 ‘타하눈’은 ‘은혜를 베풀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난’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보통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간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은 이 단어를 통하여 다윗이 정말 낮아진 자세, 겸손한 모습으로 구했음을 알게 한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어느때 보다 낮아져서 기도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다윗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받아 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 다윗은 고난을 통한 은혜를 경험했다. 바울도 약함을 통해 주어지는 강함, 환난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고, 일정기간 잠잠하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생각해 보자. 간사한 인간은 상황이 좋아지면 금새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진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깊이 묵상해 보자. **약 5:13 -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 50:15 -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을 통해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자.

3)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 다윗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드렸다. **시 28:4-5 - 4.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5.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도한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앙갚음하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죄와 타락의 모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이다. 우리는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온갖 부조리를 보면서 의를 위한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잠 15:29 -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약 5:16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의 의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삶을 위해 애써야 한다. **렘 7:3, 5-7 - 3.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4)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한 기도. **시 28:6-7 - 6.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가 세워지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다윗의 소망과 확신은 7 절에서 찬양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며 주님을 높였다. **시 28:8-9 - 8. 여호와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도 귀를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잠잠하신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자.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겸손히 무릎을 꿇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오늘도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자. 우리의 힘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시며 주님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다윗의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김금호, 이철남(멕시코 유카탄), 홍성진(페루아마존), 황윤일(페루)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10월 25일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분쟁, 폭력 사태로 발생한 실항민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1억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 고통받고 있는 난민과 실항민에 대해 전 세계적인 구호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세계 교회가 이들을 품고 보살피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